꿈꾸는 이들에게 하는 부처님의 당부



원욱 스님의 경전산책

⑥ 합리적이며 올바른 행위 경

앙굿따라니까야 (A4:61)

〈증일아함〉은 담마난제와 승가제바가 번역했으나 현재는 승가제바의 번역만 남아있다. 51권 52품이 있고, 〈앙굿따라니까야〉는 2,198 혹은 7,231 또는 2,344경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1부터 11까지 법수(法數)로 분류하였고 시간이 지날 때 마다 더 추가되어 증일(增一)이라 부른다. 즉, 4가 들어가는 사성제, 사념처, 4가지의 짐, 4종류의 사람, 등으로 사성제를 설명하기 위해 넓고 깊게 들어가기도 하고, 독립된 이야기들이 숫자대로 분류되어져 있다. 법문자료로 사용하기에 매우 유용한 자료다. 그 중에 앙굿따라니까야에서 고른 〈합리적이며 올바른 행위 경〉에서 꿈과 희망을 이루고 싶은 사람들에게 사람답게, 불자로 살아간다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고 하시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합리적이며 올바른 행위 경〉

급고독장자는 매일 아침 기원정사로 가서 부처님을 뵙고 법문을 들었다. 장자가 찾아와 인사하자 부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설법하신다.

"장자여, 4가지 법들이 있으니 그것은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것이다. 바로 법답게 재물을 얻고, 친척과 스승들에게 명성을 얻고, 수명장수하고, 죽으면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것이다."

"장자여, 이처럼 원하지만 이루기 어려운 법을 모두 성취하려면 4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믿음을 구족하고, 계행을 구족하고, 보시하려는 마음을 구족하고, 지혜(통찰지)를 구족하는 것이다." 믿음, 계행, 보시, 지혜의 4가지에 관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첫째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바로 여래의 깨달음에 대한 흔들림없는 믿음(信)을 지녀야 한다.

둘째는 계행을 구족한다는 것은 오계를 지키는 것이다. 생명을 죽이지 않으며, 훔치지 말며, 삿된 음행을 멀리여의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술과 중독성 있는 물질을 끊는 것이다.

셋째는 보시의 마음을 구족한다는 것은 베푸는 삶이다. 인색하지 않고, 아낌없이 보시하고, 주고 난 뒤에는 잊어버리며, 항상 주는 것을 즐겨하고, 봉사하려는 마음을 내는 것을 말한다.

넷째는 지혜를 구족한다는 것은 탐욕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지내며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행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잘못을 하기 때문에 평생 동안 쌓아온 명성과 행복이 한순간 사라진다. 본래 청정한 마음을 더럽히는 강력한 탐욕을 제거하고, 악의, 게으름, 들뜸과 후회, 의심하게 하는 마음의 오염 원인(五障)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재산과 명성과 장수와 극락의 삶을 성취할 수 있다. 그러나 재가자는 적법하게 벌어들인 재산으로 반드시 다음과 같은 4가지를 행하며 합리적이며 올바른 행위를 해야 한다.

첫째는 부양의무를 다하라. 부모님과 아내와 자식들과 종업과, 친구, 친척까지 행복하게 만들어 만족을 주어야 한다. 둘째는 재산을 보호하라. 물, 불, 왕, 도둑, 적과 나쁜 마음 가진 상속자로부터 보호해야 하며 정당하게 소유한 재산을 낭비하거나 잘못된 투자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셋째는 사회적 의무를 다하라. 친지, 손님, 조상신, 국가에 내는 세금과 어려운 이웃에 기부하라.

넷째는 종교인을 후원하라. 모든 이들의 행복을 위하여 살아가는 수행자들이 더욱 정진할 수 있도록 후원을 아끼지 마라. 보시는 우리에게 고귀한 결말을 가져다주며 행복이 늘어나 극락에 태어난다고 한다. 요즘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이들이 만약 정당한 재산을 지녔다면 떳떳하게 모두에게 행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또, 수행자를 후원함으로 세상을 맑히고 있을 테니 그는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재물, 명성, 장수, 극락의 삶을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

〈서울 반야사 주지〉

무슨 생각이든 부처님께 바치면 된다



김원수의 〈금강경〉 강의

⑤ 금강경 제 3분

내 마음 속에는 우주의 이치를 막연히 알지 않고 구체적으로 알아 우리 생활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는 천하의 공자님이나 아인슈타인이라도 미치치 못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네 마음 속에 누군가 낫다 혹은 누군가 못하다라고 비교 분석하는 분별심을 부처님께 바쳐야 한다. 네가 나에게 묻지 않아도 어떤 사람이 어두운 사람이며 어떤 사람이 밝은 사람인가를 알게 될 것이다."

선지식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배고프거든 그 생각을 부처님께 바쳐라. 매우 졸리면 그 생각을 부처님께 바쳐라. 각종 근심 걱정을 하지 말고 당연히 부처님께 바쳐라. 왜냐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부처님께 바칠 때 아니됨이 사라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모른다는 생각을 바칠 때 모를 것이 없어져 다 알게 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여년 전 금강경 제 3분 대승정종분에 무슨 생각이든지 부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고 부처님께 바치면 다 된다, 다 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일찍이 부처님께서는 금강경 3분 대승정종분(大乘正宗分)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살마하살이 응당 이렇게 그 마음을 항복시켜야 되나니 이른바 세상에 있는 온갖 중생인 난생, 태생, 습생, 화생, 유색, 무색, 유상, 무상, 비유상, 비무상을 내가 모두 제도하여 무여열반에 들도록 하리라 하라. 이와 같이 한량없고 가이없이 많은 중생을 다 제도하였다 하더라도 실로 제도 받은 중생이 없느니라.'

부처님은 다 되는 방법 다 아는 방법, 즉 부처가 되는 방법을 제시하셨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전의 말씀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였을 때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움은 물론 실천하여 부처님이 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경의 내용을 잘 살펴보자. 알로 까는 중생(若卵生)의 이면의 뜻은 배신하는 마음이요, 태로 낳는 중생(若胎生)의 이면은 의지하는 마음이었다. 불립문자라(不立文字)는 말씀이 있듯 〈금강경〉을 이처럼 문자가 아닌 그 이면의 뜻으로 해석한다면 〈금강경〉 가르침은 이해가 어려운 가르침이 아니라 이해할 수 있고 실천 가능한 가르침이 되는 것이다.

실제로도 밝은 이가 보면, 배신하는 마음을 연습한 결과 새나 뱀 등은 알로 까는 보를 받게 되는 것이며, 의지하는 마음을 연습하면 태를 빌어나 낳는 보를 받게 되는 것이다.

또 '我皆令入無餘涅槃 而滅度之'는 '이런 모든 중생심을 부처님 만들겠다고 하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면 금강경 제 3분은 '그대들 마음속에 올라오는 생각들 중 가령 배반하는 마음, 배은망덕 하는 마음이 올라오거나 또 숨거나 피하고 싶은 생각(若濕生)이나, 잘난 척하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은 화생(化生) 등 이런 가지가지의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 모든 생각을 다 부처님께 바쳐라'로 되는 것이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처럼 올라오는 가지가지의 생각을 다 부처님께 바칠 때 실무중생득멸도자(實無衆生得滅度者)가 된다 하셨는데 이는 무슨 뜻이냐? '실무중생 득멸도자'란 즉 한 중생도 제도받은 자가 없게 된다는 말씀이다. 한 중생도 제도 받은 자가 없다는 것은 수많은 분별심을 부처님께 바치다보니 마음 밖에 존재하는 중생이 본래 없음을 알게 된다는 뜻도 되고, 마음속의 중생, 즉 배신하는 마음, 의지하는 마음, 숨는 마음 등(약난생, 약태생, 약습생, 약화생 등)의 분별심이 착각이요, 본래 없음을 깨닫게 된다는 뜻인 것이다.

그러하기에 부처님께서는 무슨 생각이든지 그 생각을 가지지 말고 부처님께 바쳐라 하신 것이었다. 무슨 생각이든지 부처님께 바침으로 중생들 마음속의 각종 중생심이 착각이요 본래 없음을 알게 된다면 가짜 나를 주인으로 섬기고 탕자로 살아 왔던 삶에서 벗어날 것이다.

〈사회복지법인 바른법연구원 이사장〉



청운 스님의 생활속 '이뭣고' 수행

일상에서 '이뭣고'를 굴려 써라

참 마음은 우리의 본원이고 생명의 원천이다. 즉 일체 만법이 모두 다 이 마음에 있다는 말이다. 한 법도 만들어 지기 이전의 본래 마음은 모양도 없고 방위와 처소도 없지만, 인연 따라 온갖 작용을 베푼다.

'미고삼계성(迷古三界城) 오고십방공(悟古十方空)'이라고 했다. 중생이 미(迷)하면 삼계가 성(城)이지만 깨치면 동서남북이 사라진 십방이 공(空)인 것이다. 상(相) 놀음에 젖어 있는 중생들은 이 말을 알아 듣기가 어렵다. 하지만 여기서 바로 계합이 돼야지, 생각으로 헤아리면 즉시 어긋난다. 진여자성의 마음자리를 무심 또는 공성이라 하는데 마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범부의 집착하는 마음이 없다는 뜻이다. 마음은 뿌리요 법은 티끌이니 마치 거울에 묻어있을 때의 흔적과 같다. 이것이 제거돼야 비로소 생사가 없는 경지에 이르게 되고, 당당한 대도(大道)는 대단히 밝고 분명해 사람마다 본래 구족해 있고 원만히 이루어져 있지만, 다만 한 생각으로 인해 만 가지 모양을 나타낸다.

세간은 환화(幻化)이며 일체는 무상한 객진이다. 오직 태허공의 체만 있으니, 그 자리에는 형색과 소리를 두지 못하며 털끝만큼의 먼지도 세우지 못한다. 만약 부처님과 조사를 초월하고자 하면 모름지기 한 생각마다 공적(空寂)해야 한다. 우리의 식심(識心)으로 구분하는 것은 모두 전도몽상이고 '이 뭣고'로 관조(觀照)해 보면 '있다' '없다'를 떠난 진여실상의 반야지혜 자리이다.

마음 떠난 일체의 상(相)은 생멸 있고 무상한 것
업식 벗어나면 마음과 부처와 모든 중생이 무차별

마음 떠난 일체의 상(相)은 무자성의 연생법이어서 생멸이 있고, 무상한 것이다. 우리의 몸뚱이도 자성이 없고 허망한 것이어서 인연이 다하면 놓고 가는 것이고, 죄(罪) 또한 무자성이라서 부처님 당시 99명을 죽인 앙굴리마라도 참회하고 부처님 제자가 됐다. 〈화엄경, 입법계품〉에 선재동자가 구도여행 중에 찾아가는 53선지식 중에 창녀 바수밀다도 선지식으로 나온다. 물론 중생의 욕망에 따라 몸을 나타내 제도한 보살의 화신이지만, 업식에서 벗어나면 마음과 부처와 모든 중생이 차별 없는 본래 부처인 것이다.

요견삼세제불마(要見三世諸佛) "삼세의 모든 부처님을 보고자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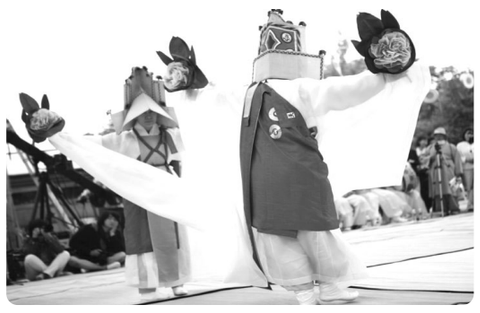
연하휘해갈(沿河休解渴) 파병막언기(把餠莫言饑)이라, 즉 "큰 강을 따라 내려가며 목마르다 하지 말고, 떡을 손에 쥐고 있으며 배고프다 하지 말라"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모든 부처님이나 조사와 팔만사천 법문도 모두 반야바라밀을 의지해 밖으로 드러내 보인 것이니, 이 반야를 믿고 '이 뭣고'로 쓰는 것이 불행이며 대신통인 것이며, 오직 모르고 모를 뿐인 당처를 찾아가는 유일한 길이 '이 뭣고'인 것이다.

또한 반야의 반대가 무명인데, 중생의 생각으로 구분하는 식심을 '이뭣고' 수행으로 반야지로 바꾸는 것을 망상을 여읜다고 한다. 우리가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 화날때 그 마음이 경계에 끌려가거나 따라 가지 말고 그 순간 알아차리고 바로 '이뭣고' 하면 홍로일점설(紅爐一点雪)이란 말처럼, 붉은 화로에 눈 한 송이가 떨어져 녹아 버리듯 내 안의 용광로가 분별망심을 다 녹여 주며, 빌지 않아도 만사형통은 자동으로 이루어져 업장소멸 된다.

'보리자성본래청정(菩提自性本來淸淨) 단용차심즉료성불(但用此心卽了成佛)'인 말처럼, 우리의 자성은 본래 청정하니 여의보주(如意寶珠)인 '이뭣고'를 생활속에서 굴려쓰면 그대로 부처인 것이다.

〈남양주 선재사 주지〉

제 12 기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 모집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에서 2018년도 초급 · 중급 · 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 작법(바라춤, 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종송 ■ 예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공 : 삼보통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 (신중작법 39위, 104위), 당일천도, 49재,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라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비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라. 강 주 : 석법운 스님

2. 개 강 ■ 2018년 3월 22일 목요일 오전 11시
■ 수업시간 : 초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 중급 · 고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6. 장소및접수처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 9길 28(복성리 1095)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총무원 동명사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0-3544-2605 / TEL 054) 974-2605 / FAX 054)974-2705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제 99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개 강 일 : 2018년 3월 13일 개강
◆ 강의일시 : 매주 (화, 금) 오후 5시 ~ 6시 30분 (90분 강좌)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 東 佛 教 梵 音 大 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0496